

# 캐나다 워홀 입국승인서 최장 1년 연장

이민부, 9월 1일부터 POE 연장 시행 발효  
입국제한 장기화 따라... 웹 폼서 신청 가능



캐나다 이민부(IRCC)가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의 입국제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IRCC는 오는 9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에 최종 합격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승인서(Port of Entry Letter, POE) 유효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IRCC는 앞서 4월 9일과 6

월 29일 두 차례 입국승인서의 유효기간을 신청자에 한해 90일 연장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서 1년 연장을 받은 참가자는 다시 최대 9개월을 추가 연장 받을 수 있고, 이미 2년 연장을 받은 참가자는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연장 신청은 IRCC 웹 폼(Web form)에서 접수 가능하며, 양식에서 "Type of Application"에는 IEC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연장 신청은 출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 구글 '6개월 온라인 강의만으로 채용'



자체 직업 학위제 도입, "4년제와 동일한 효력"

인턴 제공, 정보 공유 등 타 기업 취업도 도움 예정

구글(Google) 사는 4년제 학위 없이 6개월 정도의 온라인 수업 이수만으로도 자사에 취업할 수 있는 '구글 직업 학위(Google Career Certificate)' 과정을 곧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 사는 또 이 학위 취득자의 정보를 유명 기업들과 공유하고 자체 인턴십 제공을 통해 경험도 쌓게 하는 등 타 기업의 취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글 사는 우선 IT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수요가 높은 데이터 분석가,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등 세계 분야의 과정을 만들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어서라

(Coursera)'를 통해 강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사에 따르면 한 달 강의료가 미 49달러 정도에 책정되며 과목 수는 보통 성인이 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는 분량으로 짜일 예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코스의 성격상 프로그램을 6개월 과정으로 못 박지 않고 강의 크레딧을 모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구글 사는 강의 개설일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곧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사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학 교육이 채용 현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채용 관계자는 "많은 기업에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 채용 이후 사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사내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응시자의 교육 수준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현장에서는 응시자의 성격과 경험을 더 중요시 본다는 게 채용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워커 부사장은 또 구글 사가 과거에 50개 유명 대기업들과 어울려 만든 컨소시엄에 구글 직업 학위 소지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또 이들의 타 회사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명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충격에 한국 밀레니얼 세대도 실업·빚더미

고학력 IT능숙해도 극심한 취업난  
코로나19로 실업과 임금삭감 공포

대학을 휴학 중인 김유민(가명)씨는 지난달 말 6개월 넘게 일했던 식당을 그만두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동료 아르바이트(알바)생들이 절반으로 줄더니 사장이 조만간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며 해고 통보를 한 것.

김씨는 당장 월세부터 생활비 등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이달 초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 김씨는 "예전엔 알바 채용 자리를 놓고 경쟁률이 치열했다면 지금은 아예 구직 공고 자체가 없다"며 "새벽시간 택배나 배달 라이더 말고는 씨가 마른 상태"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밀레니얼 세대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실업과 임금삭감 등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난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삭감의 공포에 직면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밀레니

얼 세대는 금융위기 전후에 대학을 졸업해 취업난을 경험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임금 삭감으로 경력이 후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실업률은 밀레니얼 세대가 12.5%를 기록, X세대(1965~1980년 출생)와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청년층에게 더 많은 충격을 줬다는 의미다.

코로나에 취약한 서비스업 종사 영향

퓨리서치센터는 이같은 이유로 청년층 대다수가 취업업종인 숙박과 음식점종 종사자가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정부가 봉쇄정책을 강하게 펴면서 서비스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많은 젊은 세대가 직장을 잃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고학력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기로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 또 다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고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실업률 상승으로 10년간 밀레니얼 세대는 총수입의 약 13%(평균 2만5000달러)가 감소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7% 감소)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조차 이전 세대 대졸자보다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사회 초년기의 경력 후퇴로 총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은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 대비 재산이 적으며 25%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넷째주 687만 건까지 폭증했다. 같은 달 초만 해도 이 청구 건수는 21만~22만건에 불과했었다. 현재도 매주 신규 청구 건수가 100만 건에 이른다.

돈 못 모으고 경제적 독립 못해

두 차례의 경제적 충격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취업 후 결혼, 주택 구입, 출산 등을 위한 재무적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의 축적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에서 청년층(9.6%)이 중장년층(3.1%)과 노년층(2.8%)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조수연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개인 재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금융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 등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사 역할론을 주문했다. (출처: 아시아 경제)

# 새 이민자들, 코로나 실직 사태 최대 피해



코로나로 인한 실직사태에서 새 이민자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고용차별을 당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봉쇄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3~4월 2개월동안 전국에 걸쳐 일자리 3백여만개가 사라졌으며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1백70만여개가 회복

됐다. 이와관련, 연방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고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3~4월 기간 새 이민자그룹이 오래전 정착한 이민자 그룹과 국내 태생 그룹에 앞서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3월부터 발발한 팬데믹 상황에서 10년 미만 차 이민자와 10년 이상 이민자, 국내 태생 그룹의 고용실태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봉쇄로 경제활

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캐나다 실업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증했으나 그룹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4월 국내태생 그룹의 실업률은 13.5%로 뛰어 올랐으나 10년 미만 새 이민자그룹은 17.3%에 달했으며 특히 새 이민 여성들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3월 일자리를 갖고 있던 새 이민 여성그룹중 20%가 4월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내태생 여성 그룹은 이같은 비율이 13%였고 7월들어서야 이 두 그룹 간 격차가 사라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이민자들은 정착 과정에서 모국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주로 요식, 식품 업계 또는 숙박업계에서 저임금의 임시직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변 호 사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